

## 2027 EBS 수특 정약용의 ‘본연지성’

- 해설 p.12의 8 ‘문제분석’

<정약용은 …인간의 본연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임을 강조하였다>

-----

1. 우선, 정약용이 주희의 ‘본연지성’ 개념을 부정하고자 했던 사실은 잘 알 겁니다. 관련 문장은 매우 많은데,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本然(본연)이란 두 글자는 원래 (불교의) 『수능엄경』에 있는 ‘여래장의 본성은 맑고 깨끗한 본래 모습 그대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맹자』에서는 ‘성선’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다한 자는 그 성을 알고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본연지성인데, ‘본연’이라는 두 글자는 그 뜻이 바르지 않으니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梅氏書評”)

그런데 정약용은 주희가 ‘본연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 용어의 의미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말하자면, 주희가 사용한 ‘본연지성’을 사용하면서도 주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식으로 이론을 전개합니다).

정약용은 또한 인성(人性)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개 사람의 성은 도의(道義)와 기질(氣質)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의 성이 된 것이고, 금수의 성은 순전히 기질의 성일 뿐이다. … 본연지성을 논함에 있어서 사람은 도의와 기질을 합하여 하나의 성이 된 것이 本然(본연)이고, 금수는 기질지성만 있는 것이 또한 本然(본연)이다”(“孟子要義”)

정약용에 있어서 ‘본연지성’ 또는 ‘본연’은 대체로 ‘종적(種的) 특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종적 특성과 동물의 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약용에 있어서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다르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종적 특성으로서의) 인간의 본연지성은 ‘도인지성+기질지성’이 되고, 동물은 ‘본연지성=기질지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도인지성’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다는 것이죠(인간만의 종적 특성).

이제 수특 집필자가 ‘문제분석’에서 한 해설의 근거로 생각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본연지성은 원래 각각 같지 않다. 사람은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부끄러워하여 자신의 몸을 닦아 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그 本然이고, 소는 멩에를 차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풀을 먹고 새김질하며 뿔로 떠받는 것이 그 本然이다”(“孟子要義”)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본연지성’ 또는 ‘본연’을 ‘종적 특성’으로 이해하면(실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약용 입장입니다), 위 인용문의 취지가 바로 납득됩니다. 인간이라는 種(종)은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부끄러워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소라는 種은 ‘명예를 차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풀을 먹고 새김질하며 뿔로 떠받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득 집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임을 강조하였다’(수득 해설 p.12)

첫째, 정약용은 ‘본연지성은 …기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반대로, ‘도의지성 또는 천명지성은 …기호다’라는 말은 무수히 합니다).

둘째, 만일 집필자의 설명대로 ‘본연지성은 …기호’라면, 인용문에서 소의 ‘기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소의 기호’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가 명예를 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연’이라는 용어를 ‘종적 특성’으로 이해하면 아무 무리가 없게 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고, 명예를 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소라는 종의 특성이죠.

셋째, 만일 집필자의 설명처럼 ‘본연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면, 정약용이 ‘인간의 본연지성=도의지성+기질지성’이라고 한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연지성에는 ‘기질지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는 본연지성 중에서도 오직 ‘도의지성’에만 해당하죠.

## 2.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약용은 주자학에서 말하는 본연지성 개념을 부정한다.

둘째, 본연지성이라는 용어를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자학적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다.

셋째, ‘인간의 본연지성=도의지성+기질지성’이고, ‘동물의 본연지성=기질지성’이다.

넷째, 정약용은 ‘본연지성’을 ‘기호(嗜好)’로 정의한 적이 없다. 만일 ‘기호’로 정의했다면 어떻게 정의했다는 것인지 집필자가 원전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말했다면 그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만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본연’이라는 문장을 근거로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기질지성=형구의 기호’ 역시 본연지성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에 반하게 된다.

‘문제분석’에서의 해설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안 : 인간의 본연지성은 도의지성과 기질지성의 합이라고 보았다.

2안 : 인간의 본연지성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제시문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잘못 번역하고 대충 번역함),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